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5월 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관에서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음악회가 열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6월 기도의 밤으로 열립니다. 기도회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웃음을 선물해 보십시오.

5/29,6/5식당봉사 : 정영선 백성례 한숙경 안경아 김수진a김기성 임창선
 오늘설거지봉사 : 이준하 노우종 강미선 유상진
 다음 주 설거지 : 신인경 광새롬 장다운 김인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0(통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 곳곳에 묻혀있는 독극물로 인해 해를 당하는 이가 아무도 없게 해 주십시오.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극물들이 모두 발견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독극물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들 또한 마음속에 독기를 품은 채 살아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욕심과 미움의 독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흘리며 살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는 독한 기운을 다 없애 주십시오. 마음의 샘을 정화시켜 주셔서 오염된 것들 다 없애주시고 맑고 선한 것들만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60:1-2 인도자
 ♠ 교 독 문 71. 이사야55장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412(통469).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다함께
 ♠ 성경봉독 I. 막10:35-45 윤 윤 선생
 II. 빌3:12-16 허호범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찬양대
 말 씀 I. 있는 모습 그대로 이성운전도사
 II. 목표점을 바라보고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곽상준 최경미 권미숙 김근종 정옥영 김정애A박병구 김정애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한인철 조윤숙 이광용 형인순 김지호 전해리 이영우
 장원호 박성희 곽새롬 박찬덕 무명1

월정헌금:

배부레 이광섭 이준림 이주율 이영우

감사헌금:

안세혁 윤정덕 최양순 임 영 정경례 박병구 조순덕 무명1
 나오미1.3선교회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희우 임창선 문금석 이인웅 나오미2선교회

	장혜숙	백혜숙	조순덕	백혜숙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노순옥
	임정자	최경미	최경미	서원금
	문영혜	이명희	신영신	박정숙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김혜권
	박홍재	곽권희	정선희	김경수
	박효선	허정윤	김현주	김정애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김재광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정영선	이현숙	김희우	정영선
	이영란	박미영	배삼순	이영란
	박혜경	조향미	정현선	박혜경
	김재흥	오자영	교회	교회
	김기석	이건식	교회	교회

초록 꽃나무

도종환

꽃 피던 짧은 날들은 가고
 나무는 다시 평범한 빛깔로
 돌아와 있다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들과
 나란히 서서
 나무는 다시 똑같은 초록이다
 조금만 떨어져서 보아도
 꽃나무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
 그렇게 함께 서서
 비로소 여럿이 될 수 있는
 그들을 만들고
 마을 뒷산으로 이어져
 숲을 이룬다
 꽃 피던 날은 짧았지만
 꽃 진 뒤의 날들은 오래도록
 푸르고 깊다

찬 양	449(통377). 예수 따라가며	다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인지 자신의 목표점을 살피며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다함께 :	아멘.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내달렸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크고 밝은 마음으로 목표점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호흡을 지키며 한 발 한 발 깃발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공감> 음악회	6월 기도의 밤 인도자 : 김기석 목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방준 선생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박효선 권사

5월	영접위원	한완식	박병구	하정석	김정애	정경례	이명희
	헌금위원	김인걸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나이테와 자전거

광릉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에서는 수백 년 된 고목의 나이테와 나무를 다루는 목공들의 연장이 볼 만하다. 나무의 역사는 제 몸속에 기록된다. 이 동심원의 세계는 생명현상 속에 자리 잡은 자연현상의 모습일 터인데 여기에는 생명과 자연이 포개져서 질서 있는 문양을 이룬다. 나이테는 자연현상들 중에서 인간의 책에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데 이 친근감은 나이테의 문양이 생명을 통과해 나온 자연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테뿐 아니라 나무를 세로로 잘랐을 때 드러나는 결의 무늬들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절이나 한옥의 기둥, 마루, 대들보, 문지방에 드러난 나뭇결의 무늬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까닭도 그쯤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 결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는 생명의 선이며 리듬이다.

나이테를 읽어 내는 식물학자들은 나무의 생물연대와 나무가 겪은 삶의 충만과 결핍, 고통과 기쁨, 일과 휴식에 관하여 나무 한 그루마다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나이테는 나무가 쓴 책과도 같고 식물

학자들이 그 책을 읽어 내서, 나무의 책을 인간의 책으로 바꾸어준다. 태양 흑점의 발생주기를 연구하던 미국의 천문학자 더글러스 박사는 천 년이 넘는 나무의 나이테를 들여다보면서 흑점 발생의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박상진 교수가 쓴 『역사가 새겨진 나무 이야기』라는 책에서 읽었다. 지구의 땅 위에 솟아난 나무는 태양의 흑점과 몸으로 교신하고 있었다.

국립수목원 뒷마당에는 몇 년 전 홍수 때 뿌리 뽑힌 전나무의 밀동이 전시되어 있다. 이 나무는 2백 년이 넘는 것인데, 그 생물연대는 1818년부터 1988년까지이다.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쓰던 무렵에 태어나 88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무렵까지 이 전나무는 수목원 진입로에서 살았다. 한국

현대사가 근대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작동을 반복하던 시절에, 이 나무는 나이테 동심원 안쪽으로 과거를 온전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 동심원의 깊은 안쪽은 고요하고 단단해 보인다.

나무는 개체 안에 세대를 축적한다. 지나간 세대는 동심원의 안쪽으로 모이고 젊은 세대가 몸의 바깥쪽을 둘러싼다. 나무껍질 바로 밑이 가장 활발히 살아 있는 세대이다. 이 젊은 세대가 뿌리의 물을 우듬지까지 끌어올려 모든 잎들을 빛나게 하고 나무의 몸통을 키운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는 점차 기능이 둔화되고 마침내 정지되어 동심원의 안쪽으로 숨어들고, 나무껍질 밑에는 다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다. 젊음은 바깥쪽을 둘러싸고 늙음은 안쪽으로 고인다. 식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나무밀동에서 살아 있는 부분은 지름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바깥쪽이고, 그 안쪽은 대부분 생명의 기능이 소멸한 상태라고 한다. 동심원의 중심부는 물기가 닿지 않아 무기물로 변해 있고, 이 중심부는 나무가 사는 일에 간여하지 않는다. 이 중심부는 무위와 적막의 나라인데 이 무위의 중심이 나무의 전 존재를 하늘을 향한 수직으로 버티어준다. 존재 전체가 수직으로 서지 못하면 나무는 죽는다. 무위는 존재의 뼈대이다. 하나의 핵심부를 중심으로 여러 겹의 동심원을 이루는 세대들의 역할 분담과 전승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나이테를 들여다보는 일의 기쁨이다.

나무의 늙음은 낡음이나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다. 이 완성은 적막한 무위이며 단단한 응축인 것인데 하늘을 향해 곧게 서는 나무의 향일성은 이 중심의 무위에 기대고 있다. 무위의 중심이 곧게 서지 못하면 나무는 쓰러지고 거죽의 젊음은 살 자리를 잃는다. 중심부는 존재의 고요한 기둥이고 바깥쪽은 생명의 바쁜 현장인데, 새로운 세대의 표층이 태어나면 생성과 존재가 사명을 교대하면서 나이테는 하나씩 늘어간다. 동심원 속에서 늙음과 젊음이, 전위와 후방이 순탄한 질서를 이루어 나무는 곧게 서서 있을 틈우고, 꽃을 피우고, 또 잎을 떨군다. ...

나무들 사이를 자전거로 달릴 때, 바퀴는 굴러도 바퀴의 중심축의 한 극점은 항상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 극점이 움직인다면 자전거 바퀴의 회전운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적막한 중심은 나이테 동심원 속에 있고 자전거 바퀴 속에도 있다. 그 중심이 자전거를 나아가게 해준다. 숲 속으로 자전거를 저어갈 때 나무와 자전거는 다르지 않다. 나무는 늘 인간의 마

을에서 자란다. 광릉 숲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좋다.

– 김훈, 『자전거 여행2』 중에서